

‘메이드 인 광주’ 세계로

‘CES’ 참가기업 30일까지 모집 광주관·통합한국관 2개관 운영 광주시, 항공료·실무교육 등 지원

광주시가 ‘메이드 인 광주’ 제품의 세계 진출과 성장 지원에 나선다.

16일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내년 1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서 광주관, 통합한국관 내 1개관 등 광주홍보관 2개관을 운영하며, 17일부터 30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참가기업을 문화산업까지 확대해 인공지능(AI) 분야 7개사, 신산업·혁신기술·실감콘텐츠 분야 8개사 등 총 15개사를 모집하기로 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자·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로, 최신기술과 미래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전시회다.

광주시는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전시부스비, 항공료, 물류비,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CES 혁신

상’ (Innovation Awards) 지원 자금, 해외전시 역량강화, 마케팅 실무교육 등도 지원한다. 공고 문은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자우편(sy0729@gicon.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강기정 시장이 직접 지역 기업을 이끌고 ‘CES 2023’에 첫 참가했으며, 올해 ‘CES 2024’에는 지역기업 13개사가 참가해 광주의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알렸다. 특히 광주기업 6개사는 ‘CES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의 기술성을 인정받았다. 전시 기간 동안 5400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541건, 4000만 달러 수출상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CES는 기술과 실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세계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이며, 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창업 실증도시로 만드는 폭발적 에너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국 향기속으로 초여름 무더위가 계속된 16일, 전남도 민간정원 12호로 지정된 보성 윤제림 내 성림원에 다채로운 빛깔의 수국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휴일을 맞아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이 수국 군락지를 산책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면담 광폭행보

강 시장, 개헌특위 건의서 전달 ‘더현대’ 성공 전략 등 모색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속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에 전국 최대 규모 복합쇼핑몰을 짓기로 한 ‘더현대 서울’을 방문해 성공 전략 등을 모색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속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강 시장은 “헌법 수속은 지난 대선과 총선 여야 공동 공약으로, 5·18 정신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인권·평화를 지키고 5·18 왜곡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 정신 헌법 수속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어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어야 하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여야 지도부와의 개별 면담을 갖고 5·18 정신 헌법 수속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13일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국정 기초 전망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광주 발전과 시민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14일 ‘더현대 서울’을 찾아 장호진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과 면담하고 ‘더현대 광주’를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과 교통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 대표이사는 “더현대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공간과 새로운 경험으로 명소를 개발하는 역할이 있고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엔날레 등으로 대표되는 예술 도시라는 가치가 있다”며 “각각 역량과 가치를 접목해 더현대 서울 이상의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더현대 광주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2027년 개점을 목표로 달리는 광주 복합쇼핑몰은 규모, 디자인, 구성 측면에서 더현대 서울 이상의 독창적 문화복합 공간이 될 것”이라며 “더현대 서울로 여의도가 새롭게 태어났듯 더현대 광주가 세계인을 광주로 이끄는 서남권 관광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청년들, 해외서 진로·삶 방향 찾는다

광주시 ‘청년캡이어’ 본격 시작 30명 대상 예비교육·워크숍

광주시가 지역 미취업 청년의 해외 경험 등을 돕는 ‘청년캡(Gap)이어’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15~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청년캡이어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2024 광주형 청년캡이어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되는 ‘광주형 청년캡이어’는 민선 8기 대표 청년정책으로, 광주 청년이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갭(Gap) 기간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과 진로의 방향을 찾는 청년도약 지원사업이다.

광주시는 19~39세의 지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

로 올해 청년캡이어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총 124명이 신청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했다.

올해 캡이어 프로그램은 봉사, 전문가 과정, 인턴십, 워킹홀리데이, 진로탐색 등 5개 분야로, 참여자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참여자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자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며 진로를 찾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1대 1 전문상담(컨설팅)을 하고, 개인 성장과 필요 점을 분석한 뒤 캡이어 실행기간에 개인 프로젝트 피드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캡이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번 예비교육과 워크숍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 참여 등 1인당 50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 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함께 만드는 더 큰 전남’ 정책비전투어 출발

전남도, 광주전남시도민회 향우와 고향 발전 자유토론

전남도가 지난 14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광주전남시도민회 향우 300여 명과 함께 전남의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 ‘정책비전 투어’를 시작했다. ‘정책비전 투어’는 전남도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매년 시·군을 방문해 도정 성과와 비전을 도민에게 보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도민과의 대화’를, 새롭게 확대·개편한 것으로, ‘함께 만드는 더 큰 전남’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소통 대상을 광역단위 출향도민 단체까지 확대해 지방소멸 위기 등 전남도가 직면한 현안과 지역발전 방안을 도민과 향우가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주재한 ‘정책비전

투어’에서는 향우들의 건의 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농촌 인구 고령화 해소 방안 등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수석부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 신청서 2100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책비전 투어를 통해 고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향우들께 도정 현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고향 발전을 위해 평소 느꼈던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미래·예체능 등 ‘으뜸인재’ 70명 선정

맞춤형 재능개발비 지원

전남도가 으뜸인재 발굴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 70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마이스터 분야의 미래인재, 국악·실용음악, 무용·연기·영상, 클래식, 미술, 체육 분야의 예체능인재로 나눠 선발했다.

전남도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9개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선발된 으뜸인재에게는 전남도 인재증서와 함께 맞춤형 재능개발비(연간 최대 600만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 으뜸인재 발굴대회는 전남의 주역으로 성장할 인

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대표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5년 동안 411명을 선발했다. 국가대표 선발을 비롯해 전국대회 입상, 논문 발표, 서적 출간, 특허 출원, 희망 대학 진학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각자 분야에서 지역을 대변할 든든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전남을 넘어 세계로 성장할 인재들이 많이 탄생하도록 인재 양성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반론보도문

2024년 3월 4일자(인터넷 3월 3일자) ‘전남연구원장 후보 논란 이번주 적격 여부 판가름’이라는 제목으로 박기영 교수의 전남연구원장 후보 적격 논란이 심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영 교수는 자신은 과학기술분야 및 생태환경보전운동, 문화활동, 성장동력육성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여 년간 활발한 시민사회활동가이며 정책전문가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